


해아전

사업개요	사업 전체 설명
<p>위치: 서울특별시 종로구 해화동 111-2 최초준공일: 1964년 용도: 기존-1층 근린생활시설 / 변경후-노유자시설 대지면적: 91.6㎡ 건축면적: 67.93㎡ 연면적: 기존-135.86㎡ / 변경후-167.81㎡ 규모: 기존-지상2층 / 변경후-지상3층 구조: 기존-연와조 / 변경후- 철골구조+목구조</p>  <p>(기존건축물 전경)</p>	<p>해아전 58년 흔적의 보존, 그리고 현대적 재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로구는 해화로를 '아이들 특화거리'로 지정하였고, 공공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/돌봄 및 보육공간 등을 제공하여 왔다. 해아전은 그 시작사업에 해당하고, 현재 키움센터로 운영중이다. - 1964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파사드(정면)를 보존하면서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, 어린이의 공간(키움센터)로 재생하였다. - 사회는 탄소중립과 친환경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, 오래된 것의 보존과 재활용 보다는 개발의 논리에 의한 개발에 치중되어 왔다. - 해아전은 소규모 생활SOC로서 지역주민들과 이 시설을 사용하는 아이들 그리고 미래 세대가 조금이나마 옛것에 대한 보존의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작품에 대한 심사위원단 주요의견

건축적 관점에서 역사의 사실과 그 사실을 건축에 담아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옛것에 대한 해석과 그에 걸맞은 새로운 건물의 관계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.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깊은 해석이 공간과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 고민한 흔적으로 남아 있는 좋은 작품으로 평가한다.

건축물 전경	건축물 전경	건축물 전경
 <p>시간성이 축적된 파사드를 보존하고 증축 및 구조보강 하여 어린이 시설로 재생</p>	 <p>대rob면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, 아이들의 아지트와 같은 곳으로 공간 활용</p>	 <p>소규모 생활 SOC건물을 옛것과 조화된 외관으로 조성, 해화로터리 주변의 가로경관을 변화시킴</p>

건축물 전경(전/후)	개념도
	 <p>[현대적 증축] 현대적인 재료와 형태</p> <p>[50년째 FACADE] 역사의 흔적</p> <p>[연결의 개로] 호기심과 변화의 창</p> <p>58년된 입면과 대비되는 현대적인 증축 +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창호 계획</p>